

'낭만항구 목포' 시가지 산뜻해진다

지저분한 도로표지판 후면 개선
홍보용 광고탑·이정표 대대적 정비
목포시 브랜드 슬로건 적극 활용키로

목포 시가지가 '낭만항구 목포'로 산뜻해진다. 목포시는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원년을 맞아 각종 도로표지판을 비롯해 홍보용 광고탑, 버스 승강장 이정표 등 시가지 환경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시가지 주요 시설물인 도로표지판 후면이 대폭 정비된다.

목포시는 도로표지판 뒷면이 지저분해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여론에 따라 표지판 후면에 목포시 브랜드 슬로건인 '낭만항구 목포'와 '맛의 도시 목포' 등을 홍보하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목포시 건설과는 이달 한 달 동안 관내 도로표지판 354개소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나섰다.

목포시로 진입하는 경계에 위치한 도로표지판의 경우 국도 1·2호선은 익산지방 국도관리청과 지방도는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를 거쳐 정비할 방침이다.

또 시내 주요 사거리에 위치한 홍보용 광고탑에 적합한 시정 브랜드 슬로건도 대폭 정비된다.

현재 관내 홍보용 광고탑은 미즈아아병원 사거리, 만남의 폭포 사거리, 산정초교 옆, 목포대교 입



목포시는 앞으로 도로표지판의 뒷면을 활용해 브랜드 슬로건인 '낭만항구 목포'와 '맛의 도시 목포' 등을 홍보하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구, 갯바위 터널 입구, 대양산단 입구, 미래병원 삼거리 등 모두 7곳이다.

상판 28면과 상시판 14면을 정비하는 데 사업비 5800만원이 투입된다. 상판에는 기존 '해맑은 목포' 대신 새 브랜드 슬로건인 '낭만항구 목포'가, 상시 판에는 '맛의 도시 목포'와 '근대역사문화의 도시' 문안이 들어간다는 게 목포시의 설명이다.

이상선 목포시 건설과장은 "목포사랑운동이 각 계각층으로 확산되면서 도시미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시가지가 산뜻해졌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내버스 승강장도 '낭만항구 목포' 옷을 입는다.

이를 위해 목포시는 관내 버스승강장 324개소(방풍형 253, 유개식 71)에 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 이달 말까지 승강장 이정표를 전부 '낭만항구 목포'를 활용해 교체키로 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관내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 157대에 대해 기존 슬로건인 '미항 목포'를 없애고 '낭만항구 목포'로 교체했다.

이와 함께 시가지 주요 사거리에 위치한 교통섬도 새롭게 단장한다.

이번에 새로 단장되는 곳은 자유시장 교통섬 환단 조성, 평화교 옆 숲길조성, 연산 백년1번 길 왕벚 가로수길 조성, 삼학도 동백 숲 조성, 연산녹지 숲 조성 등 총 9개소에 사업비 2억9000만원이 투입된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서해 어업조정위 개최...어업분쟁 해결책 논의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학기)은 최근 목포에서 서해안 어업분쟁의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한 제21회 서해어업조정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해 연·근해어업간 어업분쟁 조정 등을 논의했다. <사진> 이번 위원회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유관기관 수산전문가, 어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어업조정위원 24명이 참석해 동 위원 변동에 따른 위(해)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논의된 안건은 연·근해어업간 어업분쟁 조정 4건에 대한 추진사항과 지난 2월께 신규안건 발굴 활동을 통해 선정된 12건이었다.

이 중 경인·충남지역 어업분쟁 조정 2건을 신규 안건으로 채택했으며 효율적인 조정활동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서해어업조정위원회는 2009년 구성돼 총 27건의 조정안건을 선정했다. 이 중 어업자협약 체결 등 12건은 조정완료했고 9건은 종결 처리됐다.

또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정이 진행 중이다.

김학기 서해어업관리단 단장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안정을 위해 동·서·남해어업조정위원회 간의 협업을 통해 서해어업조정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되고 어업인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kwangju.co.kr



목포 유달산 봄 축제가 4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3주에 걸쳐 주말 5일 동안 개최되면서 봄꽃을 만끽했으며 프로그램들도 다채롭게 꾸며져 성공 가능성을 내비쳤다.

3주 걸쳐 5일간 열린 '유달산 봄 축제' 멋·낭만 선사

다채로운 프로그램 성공 가능성 보여줘
선택과 집중 필요...주차난 개선 지적도

2년 만에 부활된 목포 유달산 봄 축제가 3주에 걸쳐 5일 동안 개최되면서 프로그램들이 다채롭게 꾸며져 축제로서 성공 가능성을 보여줬다.

무엇보다 기존 축제가 개화시기를 맞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반면 이번 축제는 3주에 걸쳐 진행돼 봄꽃을 만끽한 축제라는 기록을 남겼다.

특히 '첫사랑 춘심을 찾아라'는 체험프로그램은 젊은 층에게는 재미를, 중·장년층에게는 향수를 선사해 가장 인기를 끈 프로그램으로 꼽혔다.

또 비밀의 숲 '숲속의 낭만 피아노'와 조각공원에서 펼쳐진 '낭만 와이너리'는 이색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새로 조성된 유달산 둘레 길에서의 보물찾기와 근대 역사문화의 거리 스탬프챌린지는 외지

관광객들로부터 '뭔가 특별한 멋과 낭만을 선사한 프로그램'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도 도출됐다.

유달산에서 근대 역사문화 거리에 이르는 광범위한 공간에서 축제가 치러지면서 구석구석 숨겨진 프로그램들에 대한 상세한 홍보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차난으로 인해 관광버스를 이용한 어르신들이 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하는 불편을 겪은 것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목포시 축제 담당자는 "낭만항구 목포만의 특색 있는 공연과 체험프로그램으로 특별한 봄을 선사한 의미 있는 시간여행이 됐다"면서 "무엇보다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높이 살만하다"고 밝혔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도지회-시군예총 소통하고 예술 환경 조성 앞장"

임정호 예총 전남도연합회장 취임

"전남예총에 있는 인생의 순간은 짧겠지만 전남예총을 예술로써 승화시켜 그 빛을 더할 수 있게 애쓰겠습니다."

최근 제12대 한국예총 전남도 연합회장으로 취임한 임정호(사진) 회장은 취임식에서 "전남 도지회와 각 시·군 예총과 함께 소통하고 협회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모든 행정을 섬기는 자세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임연합회장은 "전남예총은 15개 시·군 예총과 문인, 국악, 음악, 연예, 미술, 연극, 무용, 사진으로 구성된 8개 부분의 도지회가 있다"며 "도지회와 시군예총의 소통을 중시하면서 임기 내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지역예총이 가입하도록 노력하고,



그 기반위에 지역을 대표하는 훌륭한 원로예술인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 "전통적 예술기반 위에 새로운 예술 인프라와 콘텐츠를 개발하고 젊은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재능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면서 "훌륭한 원로 예술인과 젊은 예술가들이 서로 소통하고 신뢰해 화합하는 전남예총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지난 15년 동안 목포·신안 예총을 이끌어 왔으며 전남도 연합회장 임기는 4년이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창공愛 Green세계
2019 정음드론 페스티벌
2019 JEONGEUP DRONE FESTIVAL
2019. 5. 4. (토) ~ 5. 5. (일)
정음 내장산 문화광장
개막식 5월 4일(토) 오후 7시

김태우 닐로(Nilo)

개막식(공식행사, 축하공연) | 드론에어쇼 | 드론경진대회(드론레이싱, 드론축구) | 드론비행 체험장 운영 | 드론전시·체험 | 문화공연 및 가족영화상영 | 캠핑존 운영

주최 정음시 JEONGEUP-SI 주관 JCA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Jeollabukdo Culture Contents Industry Agency